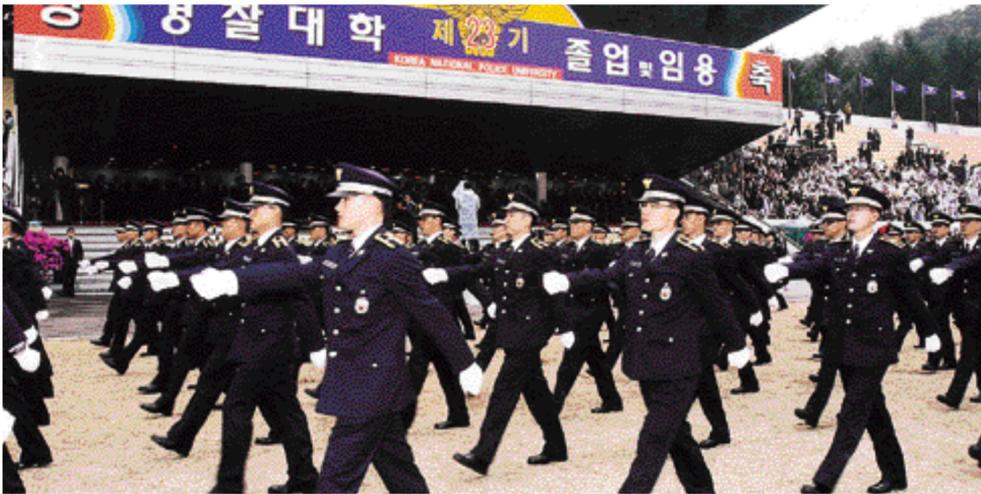


警察大學 第23期 졸업식 舉行

- 영예의 대통령賞에 박상석 경위, 국무총리賞에 임한아 경위 -



제23기 졸업생 115명이 보무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다.

경찰대학 제 23기 졸업 및 임용식이 최근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박명재 행사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구홍일 경위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등 4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어 115명의 엘리트 경찰간부가 배출되었다.

이날 졸업식은 '청년경찰의 새출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 '민남의 장'

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참관 희망 고교생, 경찰대학 동문, 명예경찰 포돌이, 인근 초·중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사'로 개최된 가운데, 기존의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남사당 풍물놀이, 경찰특공대 시범' 등 식전행사와 경찰대학 교향악단의 연주 등으로 생동감 있는 흥겨운 경축 분위기로 넘쳐났다.

이 자리에서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치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태어난

지 60여년, 경찰대학이 스물 세번째 졸업생을 배출해 낸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경찰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그간 경찰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조직의 민주화와 개방화,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수사업무의 전문화 체제 구축, 인권보호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고, 각고의 노력과 성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적

서와 사회안정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이어 권 총리 대행은 '국민은 경찰 여러분을 통해 치안행정을 맡겨 내고, 판단하고, 평가 한다'면서 '경찰간부인 여러분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라며, 그동안 정예 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가는 만큼 이제껏 가슴에 담아 온 이상과 열정을 현실에 녹여 내어 대한민국을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로 다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 총리 대행은 '전국 치안일선 현장에서 밤낮과 휴일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와 고초를 잘 알고 있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앞으로 경찰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힘 쏟겠다'고 밝혔다.

어청수 경찰대학장도 '오늘 이 자리는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 살아 왔던 4년간의 열정이 결실을 맺는 뜻 깊은 자리이자, 범죄자에게는 단단한 법집행관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는 자리'라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이 보내준 기대와 성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 학장은 '우리 대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외 유수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와 외국 경찰관 교육 등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경찰수사관의 합리적인 조정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 존중받는 공권력 확보 등 조직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씩씩 탱크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경찰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세계 최고의 경찰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서는 박상석 경위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임한아 경위가 국무총리상을, 김해림 경위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이영제 경위가 경찰청장상을, 임재현 경위가 경찰대학장상을 받아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고, 지난 81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형제가 나란히 동기생으로 졸업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인 부친과 더불어 3父子 경찰관이 탄생하게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대학은 이번에 졸업한 23기 115(남학생 105명, 여학생 10명)명을 포함해, 지난 81년 1기생을 모집한 이래 총 2천 640명(여 111명 포함)의 엘리트 경찰간부들을 양성해 온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경찰간부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搜查權 調整 - 경찰역할에 상응한 권한 배분 당연

— 최 선 우 박사(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일반적으로 構造論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에 있어서는 특히 '수사권한'의 배분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수사구조 속에 내재하는 수사권한의 문제는 형사사법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형사사법 패러다임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미시적으로 단지 수사권한 자체만을 놓고 '경찰이 수사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져야 된다, 아니면 검찰이 수사의 주체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는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는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사권한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현대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속에서 적절한 형사사법구조를 모색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형태의 수사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고 접근했을 때, 아마도 조직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뒤진 분야가 바로 형사사법 분야이며, 따라서 여전히 전 근대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지도 모른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도 그러한 면은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형사사법기관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보수적·체제 유지적 특성 및 권력성은 이의 개혁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예컨대,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성립한 근대 프랑크 혁명정부도 형사사법에 있어서 여전히 구제제를 답습하였고, 일제치하의 형사사법의 모순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잔존해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준다.

따라서 조직으로서 형사사법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조직의 생존과 발전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직결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이를 위해 수많은 조직개혁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기대와는 상관없이 형사사법기관 스스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권력, 그리고 정당성을 확

보하려는 시종일관하는 면이 적지 않다.

그래서 형사사법의 개혁은 형사사법기관 스스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며, 정치적 결단 역시 형사사법에 대한 비교우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성공하기 어렵다.

그 동안 경찰개혁 및 검찰개혁이 초기단계에서 멈춰버리고, 심지어는 시도조차 어려운 것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적절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였음을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알 수 있다.



형사사법의 개혁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사법의 문제, 그 가운데 수사구조의 개혁문제는 조직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형사사법의 역사적 발전방향과

현대 조직관리방식의 본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경찰의 수사권한 독립은 역사적·조직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사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봉건시대부터 원시시대로 올라감에 따라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구별은 불명확해진다.

즉 본래 수사기관과 소송기관이 동내기관에 의해 장악되고,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수사, 소송, 판결이 하나의 기관에 의해 장악된 형태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문화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 소송, 판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분화되는 것이 상식이고, 민주인권사상에 기초를 두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가 발달됨에 따라 국가권력이 분화되어 가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사조직으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정당성을 갖는다.

그리고 조직으로서 형사사법의 목표달성 정도는 조직에 있어서 모든 하위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 중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구조'라고 하는 하위체계의 변동 및 개선(더 나아가서는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2면으로 계속)

警友會 上半期 이사회 개최

- 예·결산안 의결, 警友회관 건립 추진위 구성키로 -

재향경우회는 최근 중앙회 회의실에서 구홍일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단, 이규식 기획조정위원장(경찰상임위원), 전국시·도회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갖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급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경우회관 마련 방안 등 당

면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홍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안보행사에 많은 경우들이 참가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하고 '엄청난 열기 속에 태동했던 반핵·반값 국민협의회에서 상당수의 단체들이 빠져 나갔지만 우리 경우회는 국가안보문

제에 대해 변함없는 목소리를 내는 등 한결같은 협의의 활동으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비중있는 역할을 해 오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구 회장은 '우리 경우회가 현직과 연

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게 현직과 화합하고 단결할 때 조직의 존립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 2005년 수사권 조정 입법 공청회 전국 회의에 참석했고, 이것이 전국 경우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며, 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조직발전으로 승화시키자'고 당부했다.

특히, 구 회장은 중앙회관 마련과 관련해서는 규모 있는 보금자리가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고 조직의 위상에 걸맞는 회관 마련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경우회관 마련과 관련, 전국 총회를 거친후에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문제를 위임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을 모았고,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갖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아직도 후진국 수준의 불법폭력 시위인가?

1. 이제 후진국형의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행동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불법폭력시위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2. 지구상에 警察과 軍이 매 맞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을 향해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경찰은 바로 국가공권력의 상징이다.

3. 불법행동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합니다.

- 방패만 들고 불법폭력시위대에 공격당해 쓰러지는 경찰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 최루가스 장비는 폭력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장비이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된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준법평화시위를 권장하고 적극 보호해 자발적 평화시위문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노사문화 정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5. 경제를 되살려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자.
- 「평화적인 시위문화정착」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